

# 투자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명한 투자자가 됨과 동시에 소중한 자산을 잘 관리하려면 투자의 기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기대하는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10%의 기대수익률을 얻고자 한다면 예금이나 적금 같은 채권형 상품으로는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반드시 자산의 일부가 주식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글 \_ 이재엽 | 재무설계사 E-mail : nest4000@naver.com C · P : 010-7708-4000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일 때 사서 비싸게 팔면 가장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조차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초에 투자전망(경제성장률, 금리, 주식, 부동산 등)에 대한 예측을 하지만 연말이 되어서 평가를 해 보면 연초와 다른 결과가 많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측을 하지 않으면 투자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수익이 좋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대부분 투자자들의 투자형태입니다. 보통 현재의 운용성과가 높은(최근 1등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펀드 등) 상품에 투자를 집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1등을 하고 있는 상품은 이미 상당히 수익이 발생한 상태라서 더 높은 수익을 얻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1등한 상품만을 골라 매년 투자 대상을 바꾼 경우 가장 수익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꼴찌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품만을

골라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요? 놀랍게도 매년 1등 한 상품에 투자한 결과보다 오히려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상황만 보아도 결과는 명확합니다. 2004년도에는 배당주식펀드가 가장 높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2004년도 배당 주식 펀드의 성과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5년도에는 중소형주 펀드들이 약진한 반면 배당주식펀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2004년도의 중소형주 펀드는 성과가 아주 좋지 않아 투자자의 관심밖에 있었는데 2005년도에 아주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2005년도에 중소형주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2006년도에 재미를 보았을까요? 아쉽게도 2006년도에는 삼성그룹 주식과 같은 대형우량주가 시장을 이끌었고, 2005년도에 중소형주에 투자한 고객은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꼴찌를 하고 있는 펀드에 과감하게 돈을 투자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 투자의 원리

### (1) 기대수익이 높으면 위험이 커진다.

현명한 투자자가 됨과 동시에 소중한 자산을 잘 관리하려면 투자의 기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기대하는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10%의 기대수익률을 얻고자 한다면 예금이나 적금 같은 채권형 상품으로는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반드시 자산의 일부가 주식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주식에 투자한다면 1년에 32%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달만에 12%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한 수익보다 훨씬 성과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 (2) 위험을 줄이는 첫번째 방법은 투자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이다.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투자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기간이 길다고 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투자에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데, 대출을 받아서 3일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일째: 내일 오를 것 같은 주식을 선택해서 저렴한 가격에 매수했습니다.(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내일 오르지 않을 것 같은 종목은 투자할 수 없겠죠?)

2일째: 어제 산 가격보다 0.5%가 상승했습니다. 0.5% 정도로는 수익이 안되니까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3일째: 오전에 장이 시작할 때는 상승하더니 이내 하락세로 돌아섭니다. 지금이라도 팔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결국 5%의 손해를 보고 팔고 말았습니다.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물론 3일동안 투자해서 1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맘 편하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3일이 아닌 3년, 30년이라면 결과는 다를거라 생각합니다.

### (3) 위험을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은 서로 다른 시장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다.

2006년의 인도 시장을 보겠습니다. 2006년 초반 인도 증시는 거의 30%에 육박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가히 폭락세라 할만 합니다. 2005년도 인도 증시가 40%에 이르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 대부분이 아주 큰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상당한 손실을 보고 펀드를 해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 증시는 2006년 하반기에 반등하더니 결국 2006년 말에 40%나 상승했습니다. 만약, 투자자가 2006년도 초에 중국에 절반을 투자하고 인도 시장에 절반을 투자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국 시장은 2006년 초부터 한번도 하락하지 않고 계속 상승했습니다. 인도 증시가 하락한 폭에 비해 훨씬 더 상승함으로써 원금의 손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니다. 2006년 하반기에 두 나라 주식시장은 가히 폭발적인 성장률을 나타내게 되었고, 따라서 2006년초 두 펀드에 절반씩 나누어 투자하였다면 한 번의 손해 없이 65.5%의 수익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 투자스트레스

투자자에게 가장 큰 적은 투자 스트레스입니다. 투자 스트레스란 자신이 선택한 투자 상품이 기대한 대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그 스트레스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하여 원래 기대했던 바와는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기간이 짧거나 투자대상이 제한적이라면 투자스트레스가 커집니다.

투자기간이 짧다면 주식보다는 예금이나 적금에 투자하시고, 투자기간이 길다면 주식에 투자하셔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계획에 따라서 알맞은 상품을 선택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